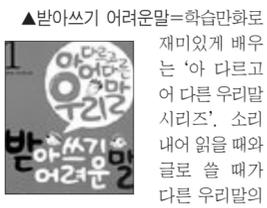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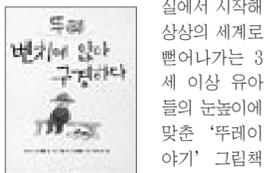


어린이 책꽂이



▲반아쓰기 어려운 말=학습만화로 재미있게 배우는 '아 다르고 어 다른 우리말 시리즈'...

▲내동생 아날로=아이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공룡의 이야기를 통해 형제간의 우애를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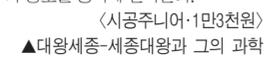


▲뚜레 벤치에 앉아 구경하다=현실에서 시작해 상상의 세계로 뻗어나가는 3세 이상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춘 '뚜레이야기' 그래픽 시리즈...

▲놀라운 땅속 세상=우리 발 밑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우리가 미처 몰랐던 땅속 세상의 신비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치를 활용하여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선사한다.



▲대왕세종-세종대왕과 그의 과학자들(제4·5권)=세종시대의 과학과 역사를 다룬 과학학습만화 시리즈...



▲대왕세종-세종대왕과 그의 과학자들(제4·5권)=세종시대의 과학과 역사를 다룬 과학학습만화 시리즈...

트를, 5권에서는 세상을 떠나기 전 세종대왕의 마지막 모습과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조선 전기 왕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과락동아북스·각 9천800원〉

스크린을 통해 본 한국 사회 부조리

이 영화를 보라 고미술 저음



영화는 상품인 동시에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문화'이다. 열하일기 등 고전을 유쾌하게 재해석해 관심을 모았던 고전평론가 고미술씨가 펴낸 '이 영화를 보라'는 사회 부조리를 담고 있는 영화를 소개하는 책이다...

학자 이반 일리히의 주장처럼, 위생권력이 교묘한 방법으로 대중을 길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화 물결 속에 방언(지역문화)이 사라져버린 문제는 '거시기'란 단어를 둘러싸고 백제와 신라 신경전을 벌이는 '황산벌'에서 찾고 있다. 또 영화속에서 "니 오늘 폼나게 죽으면 니 천 년을 산데이"라는 관장 아버지의 말을 빚어 근대가 만들어 낸 '영웅'의 허상도 지적한다.

근대 이후 억압받는 성담론은 '음란서생' '서편제' '밀양' '라디오스타' 등 6편의 영화가 다뤄진다. 이들 영화는 우리에게 친숙한 한국 영화라는 공통점과 함께 한국 사회의 근대성을 대변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저자의 선택을 받았다.

'모던타임스(1936년)'의 채플린이 칸베어벨트 공장에서 일하면서 나사못 조이는 기계가 됐듯, 우리 영화 속에도 한국의 근대성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전곡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광우병 논란과 영화 '괴물' 속에서 읽어낼 수 있는 '위생권력'이 닮았다는 점이다. 저자는 갑자기 위생을 따지며 도래한 우리의 근대는 아노와 같은 지나친 위생의 부작용을 낳으며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인문학자가 내뿜는 영화보기의 내용이 곳곳에서 느껴지는 책이다. 영화 속 명장면과 대사들이 삽화로 곁들여져 책 읽기가 수월하다.

〈그림비·1만2천9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영화 '괴물'은 위생권력에 맞선 한 가족의 사투로 소개된다. 사진은 영화에서 앙금선수 배역을 맡은 배우니가 괴물을 향해 화살을 당기는 장면.

내 인생 한권의 책

소르 헤이달 '콘티카'

고등학교 세계지리시간이었다. 당시 지리시간은 우리 속의 동물처럼 틀 속에 갇혀 있던 내게 새로운 세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탈출구인 동시에 자유로운 사색의 공간이었다.

지금도 그렇듯이 세계지도를 펼쳐 보는 것만으로 가슴이 뛰는 것은 어쩌면 그때부터 시작된 설레임이라! 그리고 홀블트 해류로 기억되는 페루 서쪽 해안에서 적도를 향해 흐르는 해류는 고대 문화의 이동 루트와도 관련 있다는 것도 이때 알 수 있었다.

대학에 갓 들어간 뒤 어느 외국문화원의 도서관에서 책 하나를 발견했다. 소르 헤이달의 '콘티카'가 그것이다. 나무를 묶어 만든 돛대 그리고 그 사이에 화살표 모양의 머리 장식과 두 눈, 그리고 답습룩한 수염이 그려진 가면이 배치된 이 책은 표지 장정부터 나의 관심을 끌었다.

'뗏목으로 태평양을 건너다'라는 부제가 달린 이 책은 바로 복사되었고 바로 하여금 밤새워 사전을 뒤적거리게 하였다. 당시엔 영문만 읽어서 책 읽기가 쉽지 않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한글본 번역서가 출간되어 다행히 나는 수고를 덜게 되었다.

실험 고고학은 모험이다



저자 소르 헤이달(THOR HEYERDAHL: 1913~2002). 그는 노르웨이 출신으로 미치 세계에 대한 탐험과 인류학적인 분야를 연구하였다. 그의 연구는 주로 폴리네시아를 무대로 이루어졌는데 특히 현지의 민족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신뢰하던 이론을 뒤엎게 되었다.

예컨대 폴리네시아인은 동남아시아에서 아니라 남아메리카에서 이동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양 지역에서의 현지조사를 통해 콘티카라는 인물이 남아메리카에서 뗏목을 타고 건너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당시엔 남아메리카에서 태평양을 건너는 기술과 능력을 믿었던 학자들은 거의 없었다. 자신의 연구가 냉담한 반응을 받게 되자 그는 스스로의 실험적 방법으로 증명을 하게 된다.

1947년 그는 선사시대에서부터 내려오는 남아메리카 인디언들의 방식과 똑같이 밭사자를 이용한 뗏목을 만들고, 6인의 승무원과 함께 페루를 출발, 폴리네시아의 투아모투 제도도 향했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콘티카호이다.

그들은 홀블트 해류를 타고 101일의 항해를 거쳐 폴리네시아의 바로이아섬에 도착하게 된다.

물론 최초 목적지와는 차이가 있지만, 책의 옛날방식 그대로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그것은 대단한 모험이었을 뿐 아니라 학문적인 성과를 수반한 것이었다.

자신의 논리를 더욱 정확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그 후에도 노르웨이 고고학탐험대를 이끌고 갈라파고스 제도도 신비한 모험의 섬 이스트제도 등을 조사하기도 하였다.

물론 그의 이론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론과 비판이 존재하지만 세계 최초의 실험고고학적인 방법은 그 뒤 여러 지역에서 문화전과 루트를 규명하는데 이용되었다.

문화를 이야기할 때, 실험적 방식에 충실했던 저자와 콘티카, 그리고 홀블트 해류는 삼위일체가 되어 나를 지탱한다.

조현중 (국립광주박물관장)



고대 이집트 미스터리 공금증 해소

나폴레옹의 피라미드 디트리히 저음



고대 이집트의 미스터리를 박진감 있게 풀어가는 역사 추리 소설이 나왔다. 역사학자이자 필리체학을 수습한 저널리스트, 유명 픽션작가로 이름 높은 윌리엄 디트리히가 펴낸 '나폴레옹의 피라미드'는 18세기 말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을 배경으로 고대 이집트로부터 전해져온 신화와 수수께끼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유쾌한 모험담을 그렸다.

주인공은 살인능력을 쓰고 단두대를 피해 나폴레옹 원정에 따라나선 모험가이자 도박사인 에단 에이지. 클레오파트라,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나폴레옹까지 세상을 지배하는 이들이 펼쳤던 수수께끼를 찾기 위한 숨막히는 추격전과 보물 탐사 과정이 전쟁사 등 다양한 역사적 사실과 함께 이집트, 파리, 지중해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예담·1만3천원〉 /김미기기자 mekim@kwangju.co.kr

황금에 대한 인간의 집착 풀어내

부의 역사 권홍우 저음



경제전문기자 권홍우가 펴낸 '부의 역사'는 황금(돈)에 대한 인간의 집착을 보여주는 책이다. 인간의 열정과 광기가 경제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책은 역압에 맞서 자유롭게 살아가려는 인간의 의지가 탐욕으로 변하고, 탐욕이 모여 제도로 굳어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유대인에 대한 종교적 박해가 세계 경제에 연쇄적인 파장을 낳은 과정도 소개한다. '유대인 추방령의 선포'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슬람 무어족 수십만 명이 에스파냐에서 강제로 쫓겨난 사건을 일컫는다.

쫓겨난 유대인들은 그 후 수천 년을 방랑하며 네덜란드의 독립과 영국의 발흥, 16~19세기 삼각무역, 미국의 성장 등에 주도적으로 개입한다. 서구의 산업화가 동양 배가기로 시작하고 영·미의 산업혁명도 산업스파이로부터 출발했다는 점 등도 다루고 있다. 〈인물과 사상사·1만6천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대인동상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지회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번으로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고흥신도시공인중개사
고흥, 녹동터미널옆 (상가부지1,300평) 평당70만원
현제공사중 완공시 광주에서 고흥까지30분거리

첨단일계공인중개사
★급매★
●첨단 인민 비아동 일반주거 지역 1000평 다세대주택, 물류창고, 복식상점사실

법원경매 전문
지지경매컨설팅(주)
법원경매입찰장 원
명확한 권리분석, 명쾌한 명도, 명확한 수익성 분석에 의한 재테크 전문상담

법원경매 전문회사
-불 앞서는 사람들- (주)옥션코리아
성공적 파트너 / (주)옥션코리아 무료상담
주최: 대포시 010-3666-8448

국민공인중개사
한 011-635-7939, 010-3114-6103
건물
●1999년 11월 15일 20x10m보너스권 1100평 1100평 2200평